

[P4-30]

농산물 소비 행태 조사 연구

김숙희, 이정숙, 김주현, 이다희, 민희은, 유춘희¹, 정진은², 김혜영³

한국식품영양재단, 상명대학교 외식영양학과¹, 안산1대학 식품영양학과², 용인대학교 식품영양학과³

본 연구에서 농산물의 소비실태 및 소비행태에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식품의 주 소비 계층인 30대부터 50대 사이의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3년 4월부터 2004년 5월 사이에 9월 사이에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식품영양학 전공 대학생들이 조사대상자를 직접면담법에 의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의 주거 형태를 보면 주로 '아파트(54.11%)'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가족수는 55.17%가 4명인 것으로 조사되어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형태였다. 또한 월 평균 소득은 150만원 ~ 300만원 사이가 4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0만원 ~ 450만원 사이가 34.5%로 나타났다. 주요 농산물의 구입 장소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형할인점 및 대형슈퍼마켓에서 구입하는 비율은 각 농산물별로 전체대상자의 34-64%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의 경우 대상자의 40.4%, 쌀외 곡류의 경우 60.8%, 엽근채류의 경우 38.6%, 과일류의 경우 38.3%, 축산물의 경우 60.3%, 우유 및 유제품의 경우 56.2%로 조사되었다. 채재시장의 경우 각 농산물별로 전체대상자의 0-31.7%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거래를 이용하는 경우를 보면 쌀, 종실류, 조미채소류의 직거래 구입이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이나 홈쇼핑의 경우는 쌀과 쌀외 곡류, 종실류, 축산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대상자의 0.7% 수준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쌀의 경우 16.4%, 종실류의 경우 13.4%가 기타방식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구입하지 않고 얻거나 다른 방법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농산물별 구입형태 및 구매 단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처리나 가공을 하지 않은 원상태의 형태로 구입하였으며 대부분의 농산물은 소포장 형태로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류별 농산물의 구입형태를 보면 곡류의 경우 가공형태로 거의 구입하지 않아으며 구매단위의 경우 쌀을 제외한 다른 곡류의 경우 소포장 단위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 및 두류의 경우 역시 원래대로 구입하는 비율이 전체의 40-93%까지 나타났으며 소포장 단위로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견과 및 종실류의 경우 밤의 경우 비교적 원래대로, 종실류의 경우 조리전단계형태를 구입하는 비율도 34.7-40.7%나 차지하였다. 과일류의 경우 원래대로 구입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사과에서 높은 대포장 구매단위의 구입비율이 13.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채소류의 경우 구입형태는 원래대로 이었으며 마늘과 양파, 건고추를 제외한 경우 소포장단위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 손질한 것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44.9-58.6%로 구매하였다. 국산농산물의 사용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필요시에 수입농산물도 사용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5.6%로 나타났다. 또한 완전조리 식품의 구입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끔 구입하거나 거의 구입하지 않은 정도가 전체의 5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농산물의 구입행태는 농산물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산물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소비행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는 농림기술관리센터에서 지원하는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